

한주간 쉽게 보는

#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1



# Contents

※ 2025.08.07.(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7.31.~2025.08.06.)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 탄소중립 분야 1

- 환경부 조직 개편과 탄소중립 정책의 미래 (2025.07.31) .....1
- 생물다양성 공존 모델 기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논의 (2025.08.03) .....1
-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교통 분야 혁신 및 탄소중립 논의 (2025.08.03) ..... 2
- 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2025.08.04) ..... 2
- 기후위기 대응, 지역특화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2025.07.31) ..... 3
- 군산 '에너지 체험교실'로 배우는 탄소중립 (2025.07.31) ..... 3
- 영양고추유통공사, '탄소중립농업 포럼' 개최 (2025.07.31) ..... 4
- 전주시 탄소중립, 민·관·산 협력의 중요성 (2025.07.31) ..... 4
- 탄소중립도시 제주, 건물에너지 절약 시급 (2025.07.31) ..... 5
- 당진시, 시민을 위한 탄소중립 홍보전시관 개관 (2025.07.31) ..... 5
- 전북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 (2025.07.31) ..... 6
- 구로구, 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2025.08.01) ..... 6
- 제주올레,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그린워커' 캠페인 시작 (2025.08.03) ..... 7
- 경기도민이 선정한 '탄소중립 핵심 정책 10선' 발표 (2025.08.03) ..... 7
- 전북 최초 주민주도형 기후실천 거점 '탄소중립 완산마을' (2025.08.03) ..... 8
- 여수시의회,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 (2025.08.04) ..... 8

-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UN NGO와 업무협약 체결 (2025.08.06) ..... 9

-

■ **☞ AI 분야 10**

- 산업부, 총 130억원 투입해 제조업 AI 전환 지원 (2025.07.31) ..... 10

- 이 대통령 “100조 국민펀드 조성, AI 중심 미래전략산업 투자” (2025.07.31) ..... 10

- “AI 3강 목표에 피지컬 AI·제조업 융합 중요” (2025.07.31) ..... 11

- 울산, AI 수도로 도약... 데이터센터 투자 확정 (2025.07.31) ..... 11

- 포항시, 2조 원 규모 AI컴퓨팅센터 본격 추진...전력·입지·제도 전방위 대응 (2025.07.31) · 12

- 서울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전체에 AI CCTV 설치 (2025.07.31) ..... 12

- 창원시, 제조기업 AI·스마트화 전폭 지원 (2025.07.31) ..... 13

- 화순군, 생성형 AI기술 활용 웹툰 창작 교육 (2025.07.31) ..... 13

- 서초 ‘AI 기업’ 임대료 5분의1 값에 모셔요 (2025.07.31) ..... 14

- 미래 산업 이끌 AI 인재 한자리에...서초구, 카이스트 손잡고 ‘서초 AI칼리지 네트워킹 데이’ 성료 (2025.07.31) ..... 14

- 진주시, 인공지능(AI)직원 교육 실시 (2025.07.31) ..... 15

- 김포시, 인공지능(AI)기본조례 입법예고 (2025.07.31) ..... 15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6**

■ **☞ 탄소중립 분야 16**

- 한국자동차연구원, AI·자율주행·탄소중립 연구 강화로 조직개편 (2025.08.05) ..... 16

■ AI 분야 17

- 전기차·AI 확산에 새 직업 등장... 고용정보원, 1000여개 직업 조사 (2025.07.31) ..... 17
- '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AI로 모니터링 (2025.07.31) ..... 17
- 경과원, AI 혁신클러스터 기반 멤버십 기업 통합 지원 추진 (2025.07.31) ..... 1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18

■ AI 분야 19

- “이제 AI가 면접관”...AI 면접 도입 기업 3배 증가 (2025.07.31) ..... 19
- LG AI 모델 ‘엑사원 4.0’, 글로벌 AI성능 11위 등극 (2025.07.31) ..... 19
- HD현대, AI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개발 (2025.07.31) ..... 20
- AI 고객센터 경쟁도 본격화... KT, 고객 1인당 상담시간 5초 줄여 (2025.07.31) ..... 20
- NC AI, 카이스트·ETRI·롯데이노·포스코DX와 독자 AI 컨소시엄 구성 (2025.07.31) .. 21
- 라온메타-아고라스, AI 기반 IT 실습 콘텐츠 통한 AI 인재 양성 협력 (2025.07.31) ... 21
- 딥노이드, 116억 규모 정부 초거대 생성형AI 개발 사업 주관 (2025.07.31) ..... 22
- 한일 대학생, AI 기반 글로벌 창업 실무 체험 (2025.07.31) ..... 22
- UNIST, 부산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한 AI CEO 과정 개설 (2025.07.31) ..... 23
- 강원자치도,「에이아이(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주관대학에 강원대 선정 (2025.07.31) 23
- “과감한 투자·핵심인력 양성 필요”...KAIST, ‘K-피지컬AI’육성전략 제시 (2025.07.31) .... 24
- 마음AI,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로봇 특화 AI 모델 개발 (2025.07.31) ..... 24
- AI 인재 뺏기고 中 직영매장 닫고... ‘한때 1위였는데’ 추락하는 애플 (2025.07.31) .... 25
- “이란 핵과학자 망명작전도 척척”...각국 ‘AI요원’경쟁 (2025.07.31) ..... 25

- 딥시크로 전투기 만드는 중국...정부가 'AI 인큐베이터'였다[평화 오디세이-中 AI굴기 현  
장리포트⑥] (2025.07.31) ..... 26
- “편의점에서 퍼스널컬러 확인”... GS25, AI 뷰티 디바이스 도입 (2025.07.31) ..... 26
- 전기에 발목 잡힌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환경 만들어야[재계팀의 비즈워치]  
(2025.07.31) ..... 27
- 온플법, AI 산업까지 덮치나... '플랫폼=AI주체' 인식 전환 필요 [역주행 플랫폼법]  
(2025.07.31) ..... 27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b>□ 환경부 조직 개편과 탄소중립 정책의 미래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에 따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이 이관될 경우, 부처의 외형이 3실 3국에서 2실 8국장 체계로 크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 전반의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기후 위기 시대에 모든 환경 정책이 기후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기능 분리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li> <li>-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등 산하에 13개 과를 둔 환경부 내 가장 큰 조직으로, 이 조직이 빠져나가면 가뭄·홍수 대응, 자원순환, 대기 정책 등 핵심 업무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임. 또한, 환경부가 축적해 온 기후 변화 대응 전문성이 분산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li> <li>- 환경부의 규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최근 정부 내에서는 환경부에서 기후 부문을 분리하기보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환경부가 탈탄소 사회 전환의 중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함</li> </ul>
	<p><b>□ 생물다양성 공존 모델 기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논의 (2025.08.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 의원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주최로 '생물다양성 공존모델에 입각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가 열림.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입지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음</li> <li>- 발제를 맡은 박찬 교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은 피하고, 훼손지나 농경지 등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낮은 곳을 '공존지역'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한 결과, 이론적으로 503~719GW의 잠재량이 있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이는 보호지역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됨</li> <li>- 토론자들은 과거 산지 태양광 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주민을 사업의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절차 보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발전 활성화, 지자체 맞춤형 입지계획 및 거버넌스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제안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b>□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교통 분야 혁신 및 탄소중립 논의 (2025.08.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가 APEC 의장국으로서 '2025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함. 이번 포럼은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의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APEC 회원국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미래 지향적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li> <li>- 포럼은 기후 위기, 도시화, 교통 불평등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통혁신과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 국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스마트 모빌리티가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 보호를 동시 실현할 핵심 전략임을 역설함</li> <li>- 포럼 기간 동안 국가 간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술 전시회, 그리고 APEC 전문가와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됨.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교통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li> </ul>
	<p><b>□ 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2025.08.0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으로 추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1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 검정시험을 통과한 총 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발표함. 이는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됨</li> <li>- 이번 교육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됨. 교육과정은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의 국내외 최신 동향, 녹색여신 관리 지침 및 실무 적용 방안 등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모두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됨</li> <li>- 이번에 배출된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상품 설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금융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오는 11월 제2차 교육을 운영하는 등 교육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기후위기 대응, 지역특화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지역에 특화된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기후위기 대응 지역 특화 탄소중립방안 발굴 정책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세미나실에서 개최됨.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와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li> <li>- 포럼에서는 유남희 전북대 교수, 임성진 전북특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등의 환영사에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자도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됨. 특히 김연지 경기도에너지산업과장이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 산업, 민간의 특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킴</li> <li>- 지정토론에서는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특화 방안을 제언함. 유남희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에는 중앙정부의 역할 외에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책포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힘</li> </ul>
	<p><b>□ 군산 '에너지 체험교실'로 배우는 탄소중립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의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 '새로이'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다함께 즐기는 에너지 체험교실'이 어린이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옥서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함</li> <li>-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 그림책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을 활용한 동화 수업으로 시작됨. 이후 재생에너지 원리를 배우는 솔라플레이블록 체험, 친환경 소비 습관을 기르는 '지구를 지키는 탄소가게' 등 실천 중심의 모듈 활동으로 이어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함</li> <li>- 군산시민발전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회씩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대전의 탄소중립 마을 '넷제로 공판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인식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영양고추유통공사, '탄소중립농업 포럼' 개최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고추유통공사가 한국탄소중립농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영양고추! 탄소중립농업으로 지역소멸·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포럼을 영양군청에서 개최함.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임</li> <li>- 전국 유일의 고추 산업 집약지인 영양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과 농촌 고령화 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됨.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농업단체 대표, 전문가, 농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실천 가능한 정책, 기술, 유통 전략을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li> <li>- 포럼에서는 '영양고추 탄소중립농업 실천 전략', '고부가가치 고추 생산과 마케팅' 등 구체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오도창 군수는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영양고추 중심의 탄소중립농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함</li> </ul>
	<p>□ <b>전주시 탄소중립, 민·관·산 협력의 중요성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가 1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한 '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함. 하지만 이 계획의 감축 목표가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치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름. 이는 행정기관 주도 계획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li> <li>-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은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 비중이 높아 시민들의 생활 방식 개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구조임. 동시에 기업 역시 RE100 참여, 저탄소 생산 공정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제적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li> <li>- 한번 내린 잘못된 결정이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록인(lock-in)'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함.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재개발, 신규단지 개발 등 주요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약 기술을 최소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탄소중립도시 제주, 건물에너지 절약 시급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8.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3.9%)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지 감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를 보여줌</li> <li>- 국토교통부의 '2024년 건물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과 열대야 일수 증가로 냉방도일이 82.3%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남. 특히 제주에서는 관광객 증가로 운동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이 각각 18.1%, 15.6%나 증가하여 전체 사용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li> <li>-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함. 또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건물 부문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li> </ul>
	<p><b>□ 당진시, 시민을 위한 탄소중립 홍보전시관 개관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홍보전시관을 공식 개관함. 이 전시관은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li> <li>- 전시관 내부에는 탄소중립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담은 교육자료,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전시품, 탄소중립 보드게임, 제로웨이스트 관련 물품 등 총 280여 점의 다채로운 전시물이 마련됨. 특히 지난 7월 당진시가 주최한 '시민업 탄소다운 공모전'의 일부 수상작도 전시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음</li> <li>- 개관을 기념하여 빈 병을 가져오는 방문객에게 친환경 주방세제를 담아주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며, 거점 교육뿐 아니라 학교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도 연중 실시할 계획임. 이를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전북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민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햇빛발전소가 문을 열었음. '전북도민 햇빛발전소 1호기'는 152명의 도민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여 완공한 참여형 태양광발전소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제를 시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낸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음</li> <li>- 이번 1호기는 전북도의 공유부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옥상 공간에 설치되었으며, 총 발전용량 250kW 규모를 갖춤. 연간 약 33만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에너지 자립, 수익의 사회적 환원, 에너지 정의 실현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추구함</li> <li>- 준공식에서는 행정, 의회, 청년, 시민사회 등 7개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희망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주체성을 강조함. 김진섭 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북도와 협력하여 2호기 건립 등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함</li> </ul>
	<p><b>□ 구로구, 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2025.08.0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구로구가 구민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힘. 이번 교육은 구민을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li> <li>- 교육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구청 신관 평생학습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교육 내용은 '폐유리 활용 조개키링 만들기'와 '친환경 주방비누 만들기'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쉽게 실천 방법을 배우도록 함</li> <li>- 회차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임.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적극 실천하고, 나아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제주올레,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그린워커' 캠페인 시작 (2025.08.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제주의 자연과 생태를 배우고 환경보호를 직접 체험하며 실천하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2025 어린이·청소년 그린워커(Green Walker)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이 사업은 제주삼다수의 사회공헌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함</li> <li>- 이 캠페인은 기존의 이론 중심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의 관찰자를 넘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춤. 교육은 제주 생태·문화 기반 실내 교육,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체험 교육, 그리고 해양 플로깅이나 '클린올레' 걷기 활동으로 구성된 3단계 통합형 구조로 설계됨</li> <li>-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학생 300명 이상을 교육하며, 이 중 80% 이상이 환경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높이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함. 안은주 제주올레 대표는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하며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li> </ul>
	<p><b>□ 경기도민이 선정한 '탄소중립 핵심 정책 10선' 발표 (2025.08.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1187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이행 10대 중요정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이번 조사는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li> <li>- 도민이 선택한 10대 정책에는 '친환경농업 확대', '학교 RE100',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및 현대화' 등이 포함됨. 하지만 분석 결과 '학교 RE100' 사업은 2025년 예산이 전무하고, 일부 중요 사업들도 예산이 삭감되어 계획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li> <li>-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이번에 선정된 10대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계획안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전북 최초 주민주도형 기후실천 거점 '탄소중립 완산마을' (2025.08.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전주시 완산동에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기후 실천의 풀뿌리 거점인 '탄소중립 완산마을'이 문을 열었음. 청년 환경단체 '프리데코'가 운영하는 이 공간은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들었으며, 환경보호를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음</li> <li>- 이곳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원칙으로 고장 난 우산과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폐자원을 수거 및 교환하며, 다회용기 사용 실험, 에너지 절약 진단, 공유 텃밭 가꾸기, 비건 요리 교실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채로운 기후 실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li> <li>- 프리데코는 향후 '아나바다존', '무해(無害) 마을식당'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전주시는 완산마을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세대 연계형 생태 프로젝트 등 시민참여형 기후실천 활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이는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 지원하는 풀뿌리 기후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li> </ul>
	<p><b>□ 여수시의회,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 (2025.08.0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시의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가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이번 연구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li> <li>-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시민 생활영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모델 개발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관광객 및 소상공인 대상 실천 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등임.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임</li> <li>-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 공간 마련,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일회용품 저감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시민들이 참여의 효능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센티브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UN NGO와 업무협약 체결 (2025.08.0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NGO인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FLML)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국제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됨</li> <li>- 협약의 핵심 내용은 광합성 효율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는 식물 '단백초'(탄소초)의 재배 기반 구축과 보급·확산, 그리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임. 단백질은 기후와 영양 이중효과를 지닌 작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음</li> <li>- 협약 이후 양측은 단백질 재배단지 조성, 학술 연구 및 실증,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임. 구경완 센터장은 단백초를 활용해 시민, 학교, 농업 현장을 연계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텃밭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확산하여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힘</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b>산업부, 총 130억원 투입해 제조업 AI 전환 지원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AI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이 사업은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AI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AI 개발 기업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AI 활용 방안을 모르거나 초기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사업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를 통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업종별 성공 사례를 만들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임</li> <li>- 공모를 통해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6개 업종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각 컨소시엄에는 21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지원함. 컨소시엄은 업종별 협회, 제조 중견기업, AI 공급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며, 제조기업은 데이터 제공 환경을, 공급기업은 맞춤형 AI 솔루션 적용 및 실증을 담당하게 됨</li> </ul>
	<p>☐ <b>이 대통령 “100조 국민펀드 조성, AI 중심 미래전략산업 투자”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이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경제 생태계를 빠르게 전환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li> <li>-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함.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8월 중 최종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li> <li>-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문함.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지시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중앙부처</b></p>	<p>□ <b>“AI 3강 목표에 피지컬 AI·제조업 융합 중요”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함. 피지컬 AI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물리적 실체와 상호작용하는 차세대 핵심 AI 기술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li> <li>-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간담회에서 “피지컬 AI는 제조·물류뿐 아니라 농업·의료·국방 등 우리 일상과 산업을 혁신할 차세대 범용 기술“이라며,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와 우리나라의 주력 분야인 제조업의 융합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함</li> <li>-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의 글로벌 시장 현황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과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 과기부는 향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분야와 제조업계의 시너지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지자체</b></p>	<p>□ <b>울산, AI 수도로 도약... 데이터센터 투자 확정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반영한 기회발전특구 변경 지정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됨. 이번 결정으로 울산은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li> <li>- 이번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센터 운영 주체가 에스케이엠유에서 에스케이이브로드밴드로 변경되고, 사업 규모가 기존 40MW에서 100MW로 대폭 확대되는 것임. 이에 따라 사업 면적은 3만 5775㎡로 증가하며, 투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 직접 고용 규모는 150명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li> <li>- 이번 데이터센터 유치는 생산유발효과 1조 5562억 원, 취업유발효과 7572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울산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포항시, 2조 원 규모 AI컴퓨팅센터 본격 추진...전력·입지·제도 전방위 대응 (2025.07.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가 2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AI컴퓨팅센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실무 대응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이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2027년까지 1GW급 초고성능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전력 공급, RE100 대응, 부지 적정성 등의 핵심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있음. 특히 한전과 협력하여 약 5개월 내에 계통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요금 차등제 도입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li> <li>-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에이치에너지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도입하고,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임. 이강덕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이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함</li> </ul>
	<p>□ 서울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전체에 AI CCTV 설치 (2025.07.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유아 익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강 수영장 및 물놀이장 8곳 전체에 인공지능(AI) 기반 방범카메라(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임</li> <li>- 지난달 27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뚝섬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유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당시 휴식 시간대로 출입이 통제되고 안전요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 수영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현재 8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잠실 1곳뿐인 것으로 드러남</li> <li>- 새롭게 설치될 AI CCTV는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대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기능을 탑재하여 위험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음.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수영장 위탁 업체에 강화된 안전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창원시, 제조기업 AI·스마트화 전폭 지원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창원시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보급과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이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춰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을 '스마트그린 AX산단'으로 조성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함</li> <li>- 핵심 사업 중 하나인 'AI 팩토리 사업'은 총 71억 원 규모로, 가스터빈 블레이드 보수 공정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작업 시간을 6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163억 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을 융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창원 디지털 위크'에서 혁신 성과를 선보일 예정임</li> <li>- 시는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제조 혁신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이미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AI 기반의 '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비정형 작업 공정의 자동화를 추진하며 미래형 제조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li> </ul>
	<p>□ <b>화순군, 생성형 AI기술 활용 웹툰 창작 교육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화순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창작 교육을 화순군 청년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힘. 이번 교육은 그림 실력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웹툰 제작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됨</li> <li>- 교육 과정은 웹툰의 기획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캐릭터 생성, 컷 구성, 스토리 제작,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브런치, 인스타툰, 전자책 출판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음</li> <li>-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년층에게 60%를 우선 배정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자기표현 능력 향상과 새로운 진로 개척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서초 ‘AI 기업’ 임대료 5분의1 값에 모셔요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서초구가 양재 인공지능(AI) 특구 내에 조성 중인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할 AI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힘. 이번 모집은 유망한 AI 기업들을 유치하여 양재 AI 특구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초구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임</li> <li>- 우수기업센터는 강남데이터센터의 9층 규모 오피스동을 임대하여 운영되며, 입주 기업에게 인근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를 제공함. 이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li> <li>- 특히 구는 설계 단계부터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36개의 회의실, 콘퍼런스홀, 휴게 라운지 등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반영함. 또한,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규제 특례와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입주기업들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li> </ul>
	<p>□ <b>미래 산업 이끌 AI 인재 한자리에...서초구, 카이스트 손잡고 ‘서초 AI칼리지 네트워킹 데이’ 성료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서초구가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AI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서초 AI칼리지’의 수강생과 수료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 행사는 지난 7년간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AI 분야의 진로 및 취·창업 사례를 나누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li> <li>- ‘서초 AI칼리지’는 2019년부터 시작된 서초구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배출된 114명의 수료생 중 약 75%가 관련 분야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이들은 AI 스타트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음</li> <li>- 올해부터는 ‘양재 AI 특구’ 지정을 발판 삼아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심화 및 프로젝트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됨.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 AI칼리지’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인재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다며, 미래 산업을 이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진주시, 인공지능(AI)직원 교육 실시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진주시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시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함. 이번 교육은 AI 기술을 공공행정에 접목하여 행정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임</li> <li>- 특강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필수 상무가 강사로 나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김 상무는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최신 기술 동향, 국내외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공공행정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전략과 주의사항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음</li> <li>-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AI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이해하고 업무에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함. 진주시는 향후 민원응대, 문서작성 등 행정 전반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li> </ul>
지자체	<p>□ <b>김포시, 인공지능(AI)기본조례 입법예고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김포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발표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임</li> <li>- 조례안에는 ▲3년 주기의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시행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도입 ▲공무원·시민·기업 대상 AI 교육프로그램 운영 ▲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li> <li>-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함.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함</li> </ul>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한국자동차연구원, AI·자율주행·탄소중립 연구 강화로 조직개편 (2025.08.0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공지능(AI)·자율주행기술과 탄소중립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분야의 첨단화를 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함. 이번 개편은 연구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여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개편안의 핵심은 연구조직을 'AI·자율주행기술연구소'와 '탄소중립기술연구소'의 양대 축으로 재편한 것임. 전자는 빅데이터·SDV, 지능제어, 커넥티비티 기술을 통합하고, 후자는 기존 친환경기술에 경량·친환경 소재기술 분야를 추가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구성됨. 조직을 슬림화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임</li> <li>- 진중욱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AI·자율주행과 탄소중립 등 첨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전기차·AI 확산에 새 직업 등장... 고용정보원, 1000여개 직업 조사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고용정보원이 2028년 발간 예정인 '한국직업사전' 제6판에 등재될 신규 직업들을 공개하며, 전기차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조명함. 이번 조사는 산업 구조와 기술 발전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됨</li> <li>- 새롭게 조사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부터 운영 플랫폼까지 총괄하는 '전기차충전서비스직', 자동차 해킹을 방지하는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그리고 생성형 AI 챗봇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자' 등이 있음. 이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전문 분야를 창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li> <li>- 기존 직업이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됨. 교통공학기술자는 자율주행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진화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활성화에 따라 항공기인증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함.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직업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li> </ul>
	<p>☐ <b>'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AI로 모니터링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청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li> <li>-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대상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또한,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접차 은밀해지는 유통 채널에 대해서도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li> <li>-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여, AI 모니터링 및 차단 건수를 현재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으로 확대할 방침임.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b>□ 경과원, AI 혁신클러스터 기반 멤버십 기업 통합 지원 추진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가 구축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유망 AI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추진함. 이 사업은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li> <li>- 모집 대상은 AI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전국의 모든 기업이며, 규모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임. 선정된 기업에는 AI 클러스터 내 업무 공간 제공, 글로벌 빅테크와 연계한 전문 교육 및 전략 컨설팅, 그리고 AI 에이전트 플랫폼 활용 교육 등 인공지능 전환(AI)에 필요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제공함</li> <li>- 특히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는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과 컨설팅을 별도로 마련하고, GPU와 클라우드 크레딧 등 고가의 연산 인프라까지 함께 제공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예정임. 김현곤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통합형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li> </ul>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이제 AI가 면접관” …AI 면접 도입 기업 3배 증가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AI) 면접 서비스 '몬스터'의 통계에 따르면,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지난 3년 사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및 중견 기업(38.5%)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공공기관(23.6%), 스타트업(19.8%) 순으로 뒤를 이음. 산업별로는 IT·테크 분야가 26.4%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여 기술 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줌</li> <li>- AI 면접의 확산은 응시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도 확인됨. 같은 기간 AI 면접 응시자 수는 6.4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 응시율은 86%에 달해 지원자 10명 중 약 9명이 AI 면접에 참여하는 등 채용 과정의 보편적인 단계로 자리 잡음. 일부 금융권 기업에서는 경력직 채용 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AI 면접 영상을 자기소개서 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활용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li> <li>- 무하유의 '몬스터'는 면접 태도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직무 및 조직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최근 과기정통부로부터 AI 신뢰성 인증(CAT) 1.0을 획득하며 공정성을 인정받았으나, 기술적 한계와 편향성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li> </ul>
	<p>☐ <b>LG AI 모델 '엑사원 4.0' , 글로벌 AI성능 11위 등극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종합 1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AI 모델 중 가장 높은 순위로, 국내 AI 기술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로 평가됨</li> <li>- '엑사원 4.0'은 특히 코딩 능력 분야에서 7위,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분야에서 10위를 기록하는 등 특정 전문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며 '톱 10'에 진입함. 종합 점수에서는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클로드 4 오피스'와 동등한 64점대를 기록하여, LG AI연구원은 AI 모델 개발 기업 기준으로 글로벌 8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함</li> <li>- 지난 15일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에 오픈 웨이트 모델로 공개된 '엑사원 4.0'의 32B 모델은 국산 AI 모델 중 최단기간인 2주 만에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음. 이홍락 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HD현대, AI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개발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D현대가 국내 대표 해운사인 에이치라인해운과 손잡고 'AI 기반 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섬. 이번 협약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 에이치라인해운 4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선박 운항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이번 협력의 핵심은 HD현대가 보유한 다양한 AI 솔루션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임.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항로 최적화 솔루션 '오션와이즈',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의 AI 화물 운영 시스템 'AI-CHS'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접목하여 최적의 운항 효율을 구현할 계획임</li> <li>- 에이치라인해운은 실제 운항 중인 LNG운반선을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제공함.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선박의 설계부터 건조, 운항,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밝힘</li> </ul>
민간기업	<p>□ <b>AI 고객센터 경쟁도 본격화... KT, 고객 1인당 상담시간 5초 줄여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민:음'을 적용한 인공지능 콘택트센터(AICC) 솔루션을 통해 고객센터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이 솔루션은 상담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객 문의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하고, 상담 종료 후에는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 및 분류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li> <li>- KT의 조사 결과, AICC 솔루션 도입 후 고객 1인당 평균 상담 시간이 5초 단축되었으며, 상담사가 상담 결과를 직접 정리하는 데 소요되던 시간이 업무의 40%에서 3%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이는 상담원들이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짐</li> <li>- AICC 시장은 KT뿐만 아니라 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AI 기업들이 모두 주목하는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음. 각 기업들은 자체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문의 자동 분류, 실시간 지식 추천, 상담 품질 자동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B2B 및 B2G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NC AI, 카이스트·ETRI·롯데이노·포스코DX와 독자 AI 컨소시엄 구성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자회사인 NC AI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 연구, 학계의 주요 기관 14곳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발표함. 이 컨소시엄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함</li> <li>- NC AI가 주관 기관을 맡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등 산업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학계의 핵심 역량이 총결집함. 각 기관은 R&amp;D, 기술 확산, 데이터 확보, 인재 양성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임</li> <li>- 컨소시엄은 NC AI가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바르코(VARCO)'를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산 신경망 처리장치(NPU) 기반의 모델 최적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임. 이연수 대표는 이번 컨소시엄이 대한민국이 AI G3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의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li> </ul>
	<p>□ <b>라온메타-아고라스, AI 기반 IT 실습 콘텐츠 통한 AI 인재 양성 협력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기업 라온메타가 IT 서비스 및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아고라스와 'AI 기반 IT 실습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AI 산업 활성화에 따라 급증하는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에 대응하고, 실무 중심의 I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됨</li> <li>- 라온메타는 자사의 메타버스 기반 실습 서비스인 '메타데미'에 아고라스가 보유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콘텐츠를 추가하여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실전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는 몰입감 높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게 됨</li> <li>- '메타데미'는 이미 실험동물 부검, 간호술기 등 다양한 분야의 B2B 콘텐츠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IT 실습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종합 실습 플랫폼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함. 윤원석 본부장은 이번 협력이 AI 분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민간기업</b></p>	<p>□ <b>딥노이드, 116억 규모 정부 초거대 생성형AI 개발 사업 주관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노이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총 116억 원 규모의 '의료 특화 멀티모달 초거대 생성형 AI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선정됨. 이번 프로젝트는 딥노이드가 의료 AI 기술력을 초거대 생성형 모델로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li> <li>- 딥노이드는 향후 5년간 정부로부터 약 49억 8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의료영상, 생체신호, 전자의무기록(EMR)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임상환경에 최적화된 의료 특화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딥노이드가 초거대 AI 모델 개발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게 되는 것임</li> <li>- 특히 딥노이드는 국제 의료 데이터 표준(HL7, FHIR 등)을 개발 단계부터 적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임. 최우식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의료 AI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대학교</b></p>	<p>□ <b>한일 대학생, AI 기반 글로벌 창업 실무 체험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일본 규슈산업대학교와 공동으로 글로벌 실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2025 Discover World in Japan'을 운영하며 양국 대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둠</li> <li>- 참가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에 참여함.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현장 조사와 고객 인터뷰를 시작으로, 한국 건양대에서는 AI 기반 MVP(최소기능제품) 제작과 IR 피칭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됨</li> <li>- 학생들은 Slack, Canva, AWS Partyrock 등 다양한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정의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까지 실습형 프로젝트를 수행함. 김용석 단장은 이 프로그램이 AI 기술 기반의 글로벌 실전 창업 역량을 기르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국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UNIST, 부산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한 AI CEO 과정 개설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부산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AX)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CEO와 공공기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 AX 최고경영자과정'을 9월부터 개설한다고 밝힘. 이 프로그램은 부산 전역의 산업체에 AI 기술 내재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이번 과정은 부산연구개발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UNIST의 우수한 교수진이 직접 교육과 사업화를 일괄적으로 지원함. 특히 실증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기업들이 교육 내용을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li> <li>- UNIST는 이미 울산·경남 지역에서 222개 기업과 340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서도 AI 기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부울경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li> </ul>
대학교	<p>□ <b>강원자치도, 「에이아이(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관대학에 강원대 선정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에이아이(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으로 강원대학교가 최종 선정됨. 이 사업은 반도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강원형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강원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임</li> <li>- 특히 이번 사업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특허 보유 세계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내 최고의 자격시험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참여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됨. 2029년까지 5년간 총 1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연간 1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li> <li>-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는 이들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도내 산·학·연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됨. 박광용 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이 강원형 반도체 산업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b>“과감한 투자·핵심인력 양성 필요” …KAIST, ‘K-피지컬AI’ 육성전략 제시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ST가 국회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 피지컬 AI’를 주제로 제1회 국가 미래전략기술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AI 반도체 및 제조업 강점을 활용한 기술 패권 전략을 논의함.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차세대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li> <li>- 이광형 총장은 한국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제조, 반도체, 로봇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영역에서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함. 유희준 교수는 초저전력 AI 반도체와 모델 경량화를 통해 제2의 AI 혁신을 이끌 ‘K-피지컬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함</li> <li>- 김정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품화와 플랫폼 기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선점 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고성능 휴머노이드 개발과 핵심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li> </ul>
	<p>□ <b>마음AI,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로봇 특화 AI 모델 개발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마음AI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K-휴머노이드 연합’은 국내 로봇, AI, 부품, 수요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임</li> <li>- 마음AI는 이번 연합 참여를 통해 로봇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기술 파트너로서 기여하게 되며, 향후 진행될 실증 및 상용화 사업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임. 이는 마음AI가 보유한 음성, 언어, 시각 기반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을 로봇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li> <li>- 유태준 마음AI 대표는 이번 연합 참여를 통해 로봇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히고,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내재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마음AI는 로봇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b>AI 인재 뺏기고 中 직영매장 닫고… ‘한때 1위였는데’ 추락하는 애플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를 자랑했던 애플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며 위기를 맞고 있음. 최근 한 달간 핵심 AI 연구원들이 경쟁사인 메타로 연이어 이직하는 등 인재 유출이 심각하며, 이는 애플의 AI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li> <li>- 애플은 지난해 자체 AI 엔진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핵심 기능인 음성 비서 ‘시리’의 개선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개발 인력의 이탈은 애플의 AI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li> <li>-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도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처음으로 직영매장 철수를 결정함. 올해 2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이 5위까지 추락하는 등 화웨이를 비롯한 현지 브랜드에 밀리면서 애플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전반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li> </ul>
	<p>□ <b>“이란 핵과학자 망명작전도 척척” …각국 ‘AI요원’ 경쟁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인공지능(AI)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첩보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AI가 특정 인물의 가족 정보, 재정 능력, 이념 성향 등을 종합 분석해 망명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별하고, SNS를 통해 접근하여 설득하는 ‘AI 요원’의 활약을 시나리오로 제시함</li> <li>- 이러한 AI의 정보전 활용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이스라엘은 AI ‘라벤더’를 활용하여 하마스 타격 시 표적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이란 고위 지휘관을 암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명중률을 높이고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li> <li>- 하지만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오히려 군과 정보기관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AI 활용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AI를 자율적인 요원이 아닌 단순한 ‘챗봇’ 수준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급변하는 첩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해외</b></p>	<p>□ <b>딥시크로 전투기 만드는 중국...정부가 'AI 인큐베이터'였다[평화 오디세이-중 AI굴기 현장리포트⑥]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봇,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은 정부가 '기업가형 국가'로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음. 중국 정부는 전력망 관리, 대중교통 전기화 등 국가의 공적 임무를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구매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에게 초기 매출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함</li> <li>-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고난도 기술 개발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 최근 중국의 첨단 전투기 개발에 딥시크 AI가 활용되는 사례나, 선전시의 전기버스 전면 교체 과정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급성장한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줌</li> <li>- 이는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애플의 '시리'나 인터넷, GPS 등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기술들 역시 미 국방부가 국가 안보라는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자금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한 결과물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과제를 첨단기술로 해결하며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업가형 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타</b></p>	<p>□ <b>“편의점에서 퍼스널컬러 확인” ... GS25, AI 뷰티 디바이스 도입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점 GS25가 MZ세대의 높은 뷰티 콘텐츠 관심에 부응하여, 퍼스널컬러 진단부터 맞춤형 화장품 구매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뷰티 디바이스'를 도입함. 이는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 가치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편의점의 역할을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임</li> <li>- 고객이 디바이스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 AI 카메라가 약 3초간 피부, 눈, 입술 색상을 정밀하게 스캔하여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도출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GS25 전용 브랜드로 구성된 색조 화장품을 추천하며, 고객은 추천받은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함</li> <li>- 이 서비스는 퍼스널컬러 진단 외에도 얼굴형과 비율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메이크업, 헤어, 주얼리 스타일링까지 제안하는 종합적인 스타일 컨설팅 기능을 제공함. 모든 분석 결과는 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 온라인 리포트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8월 한 달간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임</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전기에 발목 잡힌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환경 만들어야[재계팀의 비즈워치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AI 산업이 심각한 전력 공급 문제에 직면하며 성장에 발목이 잡힘. 기업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수도권에만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 하면서, 이미 전력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수도권에 신청된 데이터센터 용 전기량은 원전 20기에 해당하는 20GW에 달해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임</li> <li>- 기업들은 고객 접근성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AI 데이터센터 추가 설치가 지연되는 것은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li> <li>-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이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전기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실제 수요 없이 전력만 선점하는 '전기 알박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함</li> </ul>
기타	<p>□ <b>온플법, AI 산업까지 덮치나…'플랫폼=AI주체' 인식 전환 필요 [역주행 플랫폼법] (2025.07.3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가 육성하려는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커지고 있음. AI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주체가 플랫폼 기업인 만큼,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임</li> <li>-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나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기업의 핵심 영업기밀인 알고리즘 구조나 데이터 활용 방식까지 과도하게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AI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li> <li>- 전문가들은 AI와 플랫폼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AI 자체가 곧 플랫폼이 되는 흐름 속에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단순 규제보다는 공정성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설계를 통해 국내 플랫폼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